

정경(鄭經)의 조선침공설에 관한 고찰*

정 응 수**

(e-mail: chunges@nsu.ac.kr)

目 次

1. 서론
 2. 정경의 1차 침공설과 도선의 예언서
 3. 정경의 편지와 2차 침공설
 4. 결론
-

1. 서론

1673년 11월 21일, 운남성의 평서왕 오삼계가 반청복명의 기치를 내걸고 반란을 일으킨다. 이듬해 3월에는 복건성의 정남왕 경정충이, 1676년 2월에는 광동성의 평남왕 상지신이 한발 늦게 이에 합류한다. 소위 삼번의 난이다. 타이완의 정경도 1674년 이에 호응하여 한때는 양자강 이남 일대, 사천, 섬서가 그들 지배하에 들어갔다. 이후 1678년 8월 오삼계가 죽고 뒤를 이은 손자 오세번이 1681년 자살할 때까지¹⁾, 이 난은 9년간이나 중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를 격랑 속에 몰아넣었다. 물론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삼번의 난 이후 정경(鄭經, 1642-1681)만큼 조선에서 주목받은 사람도 드물 것이다. 정경은 명청교체기에 동아시아를 무대로 반청복명운동을 펼친 정성공(鄭成功, 1624-1662)의 아들로 1642년 태어났다. 1662년 정성공이 죽자 스무 살의 젊

* 이 논문은 2013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일본학(한일비교문학·비교문화).

1) 진순신, 『중국의 역사』 11, 권순만 외 옮김, 한길사, 1995년, 26-33쪽

은 나이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반청복명운동을 벌인다. 1664년에는 타이완에 동녕왕국(東寧王國)을 세우고, 1673년 삼변의 난이 발발하자 이에 적극 동조하여 한 때 복건성 일부를 장악하기도 했다. 그러나 1680년 대륙의 거점을 모두 상실하고 타이완으로 귀환하여 이듬해 1월 39세의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동녕왕국은 그 2년 후인 1683년 아들 정극상이 청에 항복함으로써 역사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동녕왕국은 사실상 정경과 그 운명을 같이 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네덜란드가 타이완의 제란디아성에서 정성공에게 항복한 1661년부터 정극상이 청에 항복한 1683년까지의 23년간을 정씨 타이완시대라 부르는데, 이 정씨 타이완시대 23년 중에서 20년이 정경의 시대였던 것이다. 그는 당시 동남아시아에 진출해 있던 서양 세력들에게 ‘타이완 왕’이라 불릴 정도로, 17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²⁾.

정경이란 이름이 조선정부의 공식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이하 『실록』이라 표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667(현종8)년 10월 3일이다. 이는 임인관 이하 표류민 95명의 심문 결과를 정리한 기사인데, 당시는 이들의 송환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기에 정경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³⁾. 정경이 조선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삼변의 난이 일어나면서부터였다. 『실록』을 검색하면 정경의 이름이 67번 등장하는데, 이 중에서 삼변의 난 이후 기사가 58건이나 된다⁴⁾. 당시 조선에서 정경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지 말해주는 수치이리라. 정성공은 총 7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⁵⁾.

삼변의 난의 도화선이 되었던 오삼계의 난이 조선에 알려진 것은 1674년(현종 15) 3월 2일이었다.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했는지 사은사 김수항이 역관 김

2) 林田芳雄, 『鄭氏台灣史—鄭成功三代の興亡實紀』, 汲古書院, 2004. 76쪽.

3) 송환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강창룡의 「17世紀 中葉 中國人の 濟州 漂到 -顯宗 8年(1667) 明나라 林寅觀 一行의 濟州 漂着과 處理를 中心으로」(『耽羅文化』 25,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2004, 28-32쪽)와 김문식의 「成海心이 증보한 『丁未伝信錄』」(『진단학보』 115, 2012-0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2, 100-102쪽)을 참고할 것.

4) 『실록』에서는 정경을 정금(鄭錦), 정금사(鄭錦舍)라고도 표기한다. 이 세 이름으로 나오는 기사를 검색하면 모두 67건이 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실록』 관련 기사는 모두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에 탑재된 『조선왕조실록』에서 인용한 것이다.

5) 사실 조선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정경보다 정성공이 더 유명했다. 일본에서는 어머니가 일본인이라는 등의 이유로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지카마쓰 문자에몬(近松門左衛門)의 『고큐센 야캇센(国性爺合戦)』을 비롯해 그를 모델로 한 작품들이 다수 창작되었다. 타이완에서는 그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점령하고 있던 타이완을 탈환하여 동녕왕국의 기초를 만들었기 때문에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중국에서도 그를 외세로부터 중국을 지킨 인물이라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타이완을 탈환하여 유럽의 동방무역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콕싱아(Coxinga)’라 불리는 유명인이 되었다. 이 때문에 서양에서도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조너선 클레멘츠는 『해적왕 정성공』과 같은 뛰어난 평전을 쓰기도 했다.

시정을 먼저 보내 조정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사절이 귀국한 3월 5일의 『실록』에는 “사은사 김수항, 부사 권우, 서장관 이우정이 청나라로부터 돌아왔다.6)”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한 추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같다. 그렇지만 곧 이어 복건성의 경정충, 타이완의 정경이 이에 호응하여 군사를 일으키자 이에 대한 조선정부의 대응도 급박해졌다. 즉 조선이 정경과 제휴하여 청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과, 정경의 군대가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않고 청나라를 섬기는 조선을 정벌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이 산해관 밖의 방어 시설을 보수하고 군사를 증강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록』에 여러 번 등장한다. 또한 정경의 조선 침공설로 인해 조선 국내정세도 매우 어수선해지는데, 이제부터 이 조선침공설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또한 17세기 후반에 등장한 도선의 예언서와 조선에서 오해한 정경의 편지 등에 주목하여, 이 침공설이 당시 이렇게 쉽게 침투할 수 있었던 요인에 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기로 하자7).

2. 정경의 1차 침공설과 도선의 예언서

1) 윤희의 정경 제휴론

조선이 정경과 제휴하여 청을 침공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1674년 여름에는 북경에 퍼져 있었다. 1674년(현종 15) 8월 3일, 조선과 정경이 연합한다는 말이 북경에 전해져 북경 사람들이 동요를 일으켰다는 유창의 보고8)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청이 산해관 밖에 있는 방어시설을 보강하고 있다는 사절들의 보

6) 『현종개수실록』, 현종 15년 3월 5일

7) 조선과 정경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외국인들이 먼저 시작했다. 神田信夫(1951)의 「三藩の亂と朝鮮」(『駿台史学』 1호), 浦廉一(1953)의 「台湾鄭氏(特に鄭經)と朝鮮との關係」(『広島大学文学部紀要』 3), 孔立(1983)의 「朝鮮与鄭成功父子」(『清史研究通訊』 1983-4), 松本真輔(2013)의 「韓国の予言書『鄭鑑録』と東アジアを駆けめぐる鄭經の朝鮮半島侵攻説」(『アジア遊学』 161, 勉誠出版) 등이 그것이다. 우리가 이 방면에 관심을 가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최관(2008)의 「정성공과 동아시아」(『일본학보』 74-2), 우인수(2010)의 「17세기 후반 대만 정씨해상세력에 대한 조선의 정보 수집과 그 의미」(『대구사학』 제100권), 정응수(2012)의 「정성공 일가에 대한 조선정부의 인식 변화」(『일어일문학』 55집)와 「조선 후기의 해상진인과 정경 부자」(『일본문화학보』 58집, 2013)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정경의 조선침공설에 관해 언급한 논문으로는 浦廉一과 松本真輔의 논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浦廉一은 조선과 정경의 전체적인 관계 속에서 조선침공설을 다루고 있으며, 松本真輔는 정감록과 정경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정경의 조선침공설을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이라고 하기 어렵다. 특히 도선의 예언서나 조선에서 오해한 정경의 편지가 당시 조선침공설 유포와 어떤 관련을 갖고 있었는지 등은 본 논문에서 처음 언급한 것이다.

8) 『현종개수실록』, 현종 15년 8월 3일, 유창만이 아니고 진향정사 민점(숙종 즉위년 11월 23일), 심익현(숙종 1년 1월 26일) 등도 조선과 정경 연합군의 청 침공설이 북경에 퍼져 있었다고 한다.

고⁹⁾도 잇따르고 있는데, 청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정경이 이러한 제후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조선에 퍼져 있었다. 즉 정경군이 조선군과 연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선군 복장을 하고 청과 싸우거나¹⁰⁾, 조선군 복장을 구입하기 위해 정경군이 부평까지 왔다¹¹⁾는 것이다.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정경과 조선의 제후설이 상당히 현실감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처럼 정경과 조선 연합군의 청 침공설이 퍼져 있던 이 시기에 실제로 정경과의 제후를 주장하는 그룹이 조선에 있었다. 윤희를 중심으로 한 북벌론자들이다. 당시 조정은 1674년(현종15) 2월 현종의 친어머니인 인선왕후(효종비)의 사망을 계기로 시어머니인 조대비의 복상문제가 다시 대두되어 2차 예송논쟁이라 불리는 갑인예송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현종은 장인 김우명(인경왕후 김씨)과 그의 조카 김석주의 의견에 따라 1차 예송 때와는 달리 남인의 기년설을 채택했다. 서인인 김우명이 송시열을 제거하고 서인정권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1차 예송 때와는 반대로 남인을 지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공설을 주장하던 서인들이 실각하고 남인들이 정권을 장악했다. 정권을 잡은 남인은 송시열의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강경파인 청남과 온건파인 탁남으로 나뉘었는데¹²⁾, 이들은 북벌론을 둘러싸고도 서로 의견을 달리한다. 북벌론자들은 주로 청남에 속했다.

청남의 우두머리인 윤희는 오삼계의 난이 조선에 알려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1674년 7월 1일 임금에게 북벌의 밑소를 올렸다. 오삼계의 난으로 중국이 혼란에 처한 지금이야말로 청에게 당한 치욕을 씻고 명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라며 군대를 동원하여 천하의 의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지금 오랑캐의 운수가 전환되어 오삼계가 난을 일으키자 중국 안이 뒤숭숭해졌으니 일역(日域)의 힘이 넉넉히 천하를 뒤흔들 수 있으며, 정인(鄭人)의 마음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스스로 수립하지 못하면 저들이 우리보다 먼저 채찍을 추켜들고 우리를 나무라거나 혹은 광복이 된 날에 우리들이

9) 예를 들어 진향정사 민점은 “봉황성과 개주위에 장차 성을 쌓는다고 하는데,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유독 정금만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필시 우리를 의심하여 그렇게 하는 것인 듯합니다.”(숙종 즉위년 11월 23일)라 했다. 심익현(숙종 1년 1월 26일), 동지사 겸 사은사 북창군 이정(숙종 1년 3월 5일)도 우리쪽을 향한 청의 방어시설에 관해 보고하고 있다.

10) 『숙종실록』, 숙종 1년 4월 3일

11) 『숙종실록』, 숙종 1년 6월 3일

12) 이덕일, 『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 석필, 1997, 253-263쪽

그들과 협심하고 끝끝내 마음을 고쳐먹지 않은 내막을 추궁한다면 비록 지혜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¹³⁾.

우리가 정경을 비롯한 반청세력과 제휴하여 청에 진격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의 의리 없음을 따지려 들 거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상소는 다음 달 현종이 죽으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윤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이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정경과 연합하여 북벌할 것을 주장했다.

1675년 1월 24에는 “또 우리가 청국을 섬기는 것이 정금이 전에 의심하여 분노하던 것인데 이제는 오삼계(吳三桂)와 힘을 합쳐 그 형세가 매우 확장되었으므로 세상에 대고 죄를 말하고 치러 올 걱정이 있을 듯하니 한 사신이 바다를 건너가서 성심(誠心)을 보이는 것은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¹⁴⁾”라고 했다. 즉 정경이 오삼계와 제휴하여 세력이 매우 강대해졌으므로 이제 조선에 죄를 물으러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명 황제의 후손인 주씨를 도와 반청복명운동을 벌이는 정경이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의 재조지은을 잇고 청을 따르는 조선의 의리 없음을 징치하러 온다는 것이다. 소위 대명의리론이다. 즉 정경과 제휴하여 청을 공격하는 것이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정경과의 제휴가 명분을 갖게 된다. 따라서 정경과 연합하지 않으면 명에 대한 의리를 배반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반청세력이 대명의리를 배반한 조선을 징치할 수도 있게 된다. 즉 정경의 조선침공론이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한편 당시 쓰시마번 정보에 의하면, 실제로 백성들 사이에서는 청이 망한 후에 오삼계 등에게 추궁당할 것을 염려한 조선정부가 오삼계군에게 구원병을 보내기로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¹⁵⁾고 한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이 아무런 외적이 쳐들어 왔다는 소문이 나서 전국이 커다란 소란에 휩싸인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아직 침공군이 정경군이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2) 정경의 1차 침공설

밤에 서울 안팎이 갑자기 경동(驚動)하여, 호(胡)가 온다고도 하고 왜(倭)가 온다고도 하며, 집집마다 짐을 지고 나르고, 사녀(士女)가 붙들어 안고 나오는 경우가 있기까지 하였는데,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비로소 진정(鎮定)되었다.

13) 『현종실록』, 현종 15년 7월 1일

14) 『숙종실록』, 숙종 1년 1월 24일

15) 「對馬注進」, 『華夷變態』上, 林春勝·林信篤 編, 동양문고총간 제15, 동방서점, 1981, 107-109쪽

(뜯소문은 해서(海西)의 장련(長連) 등지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전언(傳言)에 ‘왜선(倭船)이 이미 해안(海岸)에 정박하여 해서의 여러 고을이 여러(閭里)를 텅 비우고 산골짜기에 도망하여 숨은 것이 며칠 되었다.’ 하였으므로, 안으로 경성(京城)에서부터 밖으로 삼남(三南)에 이르기까지 진동(振動)하지 않음이 없었다.)
16)

1674년 9월의 기사인데, 한양에 ‘호가 온다고도 하고 왜가 온다고도’¹⁷⁾ 할 수 있는, 바꿔 말해 ‘호일 수도 있고 왜일 수도 있는’ 정체불명의 외적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나서 한양만이 아니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피난하느라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소동은 황해도 장연 등지에서 잘못 전해진 소문, 즉 왜선이 황해도 해안에 정박하여 그 근처 사람들이 모두 산으로 도망하여 숨은 지 며칠 되었다는 소문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다시 말해 ‘왜선’ 때문에 벌어진 소동인데, 이것이 한양에 와서는 ‘호일 수도 왜일 수도’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1675년이 되면 이 ‘호일 수도 왜일 수도’ 있는 정체불명의 외적이 ‘정경의 수군’으로 바뀐다. 1675년 6월 3일 『실록』을 보면 “갑인년 10월¹⁸⁾에 해서지방으로부터 와언이 있기를 ‘경외가 크게 시끄러웠다.’ 하였고, 혹은 말하기를 ‘이는 괜히 놀란 것이 아니라 정금이 이끄는 수군이 해상에서 등주(登州)와 내주(萊州)로 향하였다고 바닷가의 사람들이 서로 전파하여 이 말이 나게 되었다.’고 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즉 1674년 9월에 벌어진 해서지방의 소동이 ‘왜선’ 때문이 아니고 정경의 군대에 의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처음 ‘왜선’에서 시작한 소란이 ‘호일 수도 왜일 수도’ 있는

16) 『숙종실록』, 숙종 즉위년 9월 4일

17) 김탁은 1748년(영조 24) 「청주와 문의 패서사건」에서 등장한 ‘왜인 같지만 왜인이 아닌 것이 남쪽에서 온다(似倭非倭, 自南而來)’라는 표현이 현전하는 『정감록』 속 「도선비기」에 나오는 ‘푸른 옷을 입고 남쪽에서 오니 오랑캐도 아니요 왜적도 아니다(野着青衣而自南, 非倭非倭)’라는 표현과 비슷하다고 한 다음, 현전하는 「도선비기」의 일부 구절이 당시에 상당히 알려졌을 것이라 했다(『정감록』, 살림, 2005년, 157쪽). 그런데 「청주와 문의 패서사건」에는 또한 ‘왜가 온다느니 호가 온다느니(倭來胡來)(『영조실록』 영조 24년 5월 25일)’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이는 1674년의 해서지방 소란 시 등장한 ‘호(胡)가 온다고도 하고 왜(倭)가 온다고도 하는(或云胡來, 或云倭來)’ 표현과 매우 유사하다. 아직 정밀한 검증이 더 필요하지만, 1차적으로 해서지방의 표현은 「청주와 문의 패서사건」이나 현전 「도선비기」에 등장하는 표현의 원형적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당시에 이미 정진인설, 다시 말해 정씨가 조선을 지배할 것이라는 도선의 예언서가 등장해 있었다.

18) 갑인년이 1674년이므로, 이 기록을 그대로 믿으면 해서지방에서 1674년 10월에 큰 소란이 있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실록』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1674년 10월에 이러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앞에서 인용한 1674년 9월 4일의 기사만 있을 뿐이다. 게다가 같은 해 9월과 10월, 즉 한 달 간격으로 거의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적으로, 다시 ‘정경의 군대’로 바뀐 것이다.

물론 외적의 성격이 이처럼 바뀐 것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1675년 여름 무렵, 조선은 정경의 조선침공설로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즉 쓰시마에서 ‘정금이 이미 병선을 정돈하고 장차 본국과 함께 중원에 사변을 일으키려고 하여 귀국과 더불어 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 전일의 서계에 귀국은 막연하여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금의 군사가 마땅히 먼저 귀국에 이를 것이니, 교호하는 사이로서 고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19)’는 내용의 왜서가 도착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조선 전역이 들끓고 있었다. 다시 말해 정경이 일본, 조선과 연합하여 중국을 구원하려 하는데 조선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정경이 먼저 조선에 쳐들어 올 것이라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이로 인해 “여염 사이에 소란이 크게 번져 마치 변란이 아침저녁에 일어날 것처럼 하였고 겨울 사이에 이르러 더욱 심했20)”다고 한다.

그러자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허적을 중심으로 한 탁남 세력들이 조사를 진행하여 나라를 원망하는 무리들이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 민심을 동요시키려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정부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가짜 왜서를 만들어 유포시켰다는 것이다. 범인으로는 서인인 조창한 등이 지목되었지만, 구체적인 혐의를 찾을 수 없어 이내 석방되었다. 심문받을 때 조창한이 “시골의 소란스러움이 서울보다 심하여 사람들이 만나면 모두 정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 것이나, 그 아들 조송이 “여름과 가을 사이에 일종의 왜서에 대한 말이 갑자기 번져 입 달린 사람은 모두 전파”했다고 한 것을 보면, 당시 정경의 침공설은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전국적인 규모로 유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창한은 이후 의령현감으로 재직 중이던 1681년(숙종7), 사간원으로부터 재차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삭직되었다21). 사유는 이 가짜 왜서 사건과 송시열에게 사문난적으로 몰린 윤희에게 아첨했다는 것22)이었다. 당시는 1680년(숙종6)의 경신환국으로 인해 그때까지 정권을 잡고 있던 남인들이 몰락하여 허적, 윤희 등 남인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살육을 당하던 때였다23). 조창한은 서인

19) 『숙종실록』, 숙종 2년 2월 15일

20) 『국역비변사등록』 32책, 「倭書를 偽造하여 人心의 動搖를 일으킨 자들의 治罪를 청하는 許積의 啓」, 숙종 2년 3월 11일.

21)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
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Id=PPL_6JOC_A9999_1_0033456&isEQ=true&kristalSearchArea=B

22) 『숙종실록』, 숙종 7년 10월 11일

23) 이성무, 『조선시대당쟁사2』, 동방미디어, 2000년, 30-34쪽

이라 처음에는 남인 허적에게 탄압을 받았지만, 이때는 윤희와 친하다는 이유로 같은 서인으로부터 탄핵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위조되었다는 왜서의 내용을 보면 그 바탕에 대명의리론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을 구원하는 일, 즉 반청복명운동에 조선이 참여하지 않으면 정경이 조선을 침공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윤희가 주장한 정경 제후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경의 1차 침공설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가짜 왜서의 작성자는 북벌론자들과 사상적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을 지도 모른다.

3) 도선의 예언서

사회가 혼란해지면 이를 틈타 유언비어나 와언들이 널리 퍼지게 되어 있다. 당시에 도 정경의 조선침공설을 뒷받침하는 여러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영남 인동(仁同)의 약목촌(若木村)에서는 무너져 내린 산벼랑에서 돌이 나왔는데, 그 돌에 ‘홍무(洪武) 후 310년에 산동의 마장군(馬將軍)이 군사를 이끈 패’라 적혀 있었고, 이 때문에 사람들이 오삼계나 정금의 장수 중에서 마가의 성을 가진 자가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했다고 한다²⁴⁾. 정경의 침공을 예언하는 예언석을 등장시킴으로써 정경의 침공설을 더욱 그럴 듯한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도선의 예언서도 등장한다.

금사(錦舍)가 이번에 활약이 컸기에, 오삼계가 금사에게 “이번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한다면 (당신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이 조선에 전해졌다고 들었습니다. 금사로 말하자면 정씨이기 때문에 조선 6대성에 들어가 (조선에서의) 유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5, 6백년 전에 승리 도선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자가 말세에 관해 적어놓은 책에 5백년 쯤 뒤에 정씨가 조선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도선의 이러한 예언들도 감안하면 정말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아래 것들이 더욱 걱정하고 있습니다²⁵⁾.

24) 『숙종실록』, 숙종 1년 6월 3일

25) 「朝鮮國ニ而風說之覺書」, 『華夷變態』上, 林春勝·林信篤 編, 동양문고총간 제15, 동방서점, 1981, 135-136쪽.

錦舍今度之勤強御座候故、吳三桂錦舍江為申間候者、今度之戰彌得勝利候は、朝鮮國支配可為仕と申候由、朝鮮國に伝承、錦舍儀者鄭氏に候故、朝鮮六姓之内に候由緒も有之間、若右之說実正に而も可有之候哉と氣遣申候、殊五六百年以前、釈氏道說と申者御座候處、此者末世之儀書置申候書に、五百年程之後、鄭氏之者朝鮮をも支配仕事可有之由御座候、ケ様之儀に而も候半かと下々弥氣遣由申候事 (인용문 중의 ‘석씨도설(釈氏道說)’은 ‘석씨도선(釈氏道說)’의 오자이다. 이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정응수

1675(숙종1)년 11월 8일 쓰시마도주가 에도막부에 보낸 「조선에서 들은 풍문에 관한 각서(朝鮮國ニ而風說之覺書)」란 보고서의 일부분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오삼계가 정경에게 조선을 지배하라고 했다는 소문이 조선에 퍼졌다는 것이다. 당시 조선에는 오삼계의 세력이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소문은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둘째로는 정씨가 조선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도선 명의의 예언서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마침 정경이 정씨이므로 이 예언이 정말로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경 침공설이 정진인설과 결합한 것이다²⁶⁾. 이렇게 되면 정경의 조선 침공은 단지 대명의리를 세우려는 명분론만이 아니고 정진인의 출현, 다시 말해 도선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조선에서 이처럼 정경의 조선침공설이 현실감을 더해가던 1674-5년 무렵, 정경은 복건성(福建省)의 천주(泉州), 장주(漳州), 장포(漳浦) 및 광동성(廣東省)의 조주(潮州) 등을 점령하고 있었지만 산둥성이나 조선을 공격할 여력은 없었다. 복건성 연해지방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경정충(耿精忠)과 쟁탈전을 벌이는 중이었고²⁷⁾, 또 조선은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경의 조선침공설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정금(鄭錦)은 해도(海島)에 웅거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호서(湖西) 지방과 아주 가까웠다²⁸⁾”라는 말처럼, 우리는 타이완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생각했다. 정경의 조선침공설을 실현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인 데에는 이러한 요인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정경의 조선침공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 침공설은 수면 아래로 잠복한다. 대신 타이완으로의 도해설이 등장한다. 즉 정경이 오지 않자 정경을 데리러 직접 타이완으로 건너가려 한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1682년 노계신의 거짓 고변 사건에서는 오시항이 정진인인 정경을 찾아 타이완으로 도해하려는 것²⁹⁾으로 되어 있다. 1679(숙종5)년 3월 12일에 있었던 강화 흥서사건의 투서자 이유정도 일본을 거쳐 중국에 가서 주씨(朱氏)를 세워 천하를 정한 다음 정금(鄭錦)과 함께 돌아오려 했다³⁰⁾고 한다. 또한 1679년 12월 28일 임창군과 임성군의 유배지 변경 시 허적이 제주도는 정금이 사는 곳

의 「조선 후기의 해상진인과 정경 부자」(『일본문화학보』 58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13년, 371-374쪽)를 참조할 것.

26) 정경이 정진인에 포함되는 과정에 관해서는 정응수의 「조선 후기의 해상진인과 정경 부자」(『일본문화학보』 58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13년, 371-374쪽)를 참조할 것.

27) 林田芳雄, 앞의 책, 85쪽

28) 『숙종실록』, 숙종 1년 6월 3일

29) 『推案及鞫案』 9, 「壬戌 盧繼信推案」, 500쪽.

과 가깝다며 걱정하는 대목³¹⁾이 나온다. 이를 보면 조정은 여전히 불만 세력과 정경의 연계를 걱정하고 있었고, 또 불만세력은 이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3. 정경의 편지와 2차 침공설

1) 조선에서 오해한 정경의 편지

삼번의 난 종료 소식이 조선에 알려진 것은 1682년 3월이었다. 주청사 겸 동지사로서 청을 방문한 사절단이 3월 2일 선래장계로 “북경은 운남, 귀주가 평정된 뒤부터 위아래가 서로 경하하여 문득 태평을 즐기”고 있다고 알려진 것이다. 그들은 3월 20일의 귀국 보고에서도, 남방이 평정되었다는 보고가 사실이라고 묻는 숙종에게 거짓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로써 삼번의 난에 대한 조선의 근심은 없어졌다.

그러나 정경 일가는 아직 타이완에서 견재하고 있었기에 여전히 조선의 두통거리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사절단은 정경 일가에 대한 정보 수집을 게을리 할 수 없었다. 앞에서 언급한 1682년의 사절단도 당연히 정경 일가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수집했고, 그 결과를 장계에 기록했다. 그들은 3월 2일 보낸 선래장계에서 정경이 1677년 청군에게 대패하여 타이완으로 철수했는데 아녀자가 부족하여 아녀자 한 사람의 값이 수 백금이나 된다고 한 다음,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전에 정금이 복건 총독(福建總督)에게 답한 글에, ‘본도(本島)는 바람을 받은 배가 남으로는 고료(高遼)까지 가고 북으로는 동영(東瀛)까지 가니, 어느 곳인들 둔소(屯所)를 개척할 수 없으며, 어느 곳인들 군사를 모을 수 없겠는가? 선왕(先王)부터 나에 이르기까지 쟁집(爭執)하는 것은 삭발(削髮) 두 자(字)뿐인데, 태만(台灣)은 바다 밖에 멀리 있어 중국의 판도(版圖)에 들어가지 않고, 섬 안은 백성이 유통하고 상고(商賈)가 모여들며 의관(衣冠)이 훌륭한 것이 중국보다 못하지 않으니, 태왕(太王)이 빈(邠)에 천도(遷都)한 것에 비하지는 못하겠지만, 백성을 늘리고 재물을 불리고 가르치면 또한 만세에 망하지 않을 기업(基業)을 세울 수 있다. 이것은 다 그대로 사자(使者)가 눈으로 본 것인데, 내가 어찌하여 작위(爵位)를 생각하겠으며, 어찌하여 강토(疆土)를 탐내겠기에 이 삭발하는 일을 감수하겠는가?’ 하였다 합니다³²⁾.

30) 『숙종실록』, 숙종 5년 5월 2일

31) 『숙종실록』, 숙종 5년 12월 28일

32) 『숙종실록』, 숙종 8년(1682) 3월 2일(경술), 前者鄭錦答福建總督書云：本島風帆所指，本島風帆所

‘전에 정금이 복건 총독에게 답한 글’이란 정경이 청과 화평교섭을 진행할 때 보낸 편지를 가리킨다. 그는 이 편지에서 타이완은 남으로는 고료(高遼), 북으로는 일본까지 갈 수 있으며, 원래부터 중국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게다가 백성과 상업이 번창하고 문물이 발달하여 만세의 기업을 세울 수 있는데 어찌 중국의 작위와 영토를 탐내어 변발을 하겠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청은 정경과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화평교섭도 벌였다. 물론 이 화의는 모두 청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청이 정경을 대등한 상대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청은 타이완을 중국 황제가 다스리는 영토로 간주하고 있었으므로 정경을 반란자로 취급하고 있었다. 이 화평 교섭은 대체로 정경이 약간 열세에 놓여 있을 때 제안한 것으로, 청의 전략적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아무튼 정경이 타이완을 다스리던 약 20년간 정경과 청은 1663년부터 1679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화평교섭을 벌였다³³⁾.

그런데 이 일곱 번의 화의 중 1667년에 있었던 제2차 화의 때 정경이 청의 총병관 공원장(孔元章)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선왕 때부터 귀국과 화의하면서 다툰 것은 오직 삭발 두 글자뿐인데 지금 동녕은 멀리 바다 밖에 있어 중국의 판도에 속하지 않는다. 동쪽으로는 일본, 남쪽으로는 루손(呂宋) 섬과 접해 있으며 백성들이 모여 들고 상인들이 유통되어 원래부터 왕후의 부귀가 나에게 있다. 또한 만세의 터전을 이미 세워 놓았으니 어찌 새삼스럽게 삭발까지 하면서 작호나 영토를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³⁴⁾

즉 당신들은 우리에게 강화의 조건으로 변발을 강요하지만 동녕은 중국의 영토 밖에 있다. 게다가 일본, 루손 섬과 인접해 있으며, 백성도 많고 상업도 번창하여 이미 만세의 기틀을 세웠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변발까지 하면서 작호나 영토를 받을 일이 없다는 것이다. 1682년의 사절들이 전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타이완에 인접한 국가만 다를 뿐이다. 즉 『실록』에서는 타이완의 ‘남

指，南極高遼，北止東瀛，何處不可以開屯，何地不可以聚兵乎？自先王以至不佞，所爭者只是削髮二字。台灣遠在海外，不入於中國版圖，島中人民流通，商賈輻奏，衣冠之盛，不輸於中土。雖未能遽比於太王之遷邠，而生聚教訓，亦可以樹萬世不磨之基業。此皆貴价所目觀者，不佞何慕乎爵位，何貪乎疆土，而甘為此削髮之舉哉？

33) 林田芳雄, 앞의 책, 125-126쪽.

34) 「鄭經復孔元章書」, 『康熙統一台灣檔案史料選輯』, 福建人民出版社, 1983년, 70쪽
自昔貴朝之議和者屢矣，從先王以至不佞，只緣爭此(削髮)二字，況今東寧遠在海外，非屬版圖之中，東連日本，南躡呂宋，人民輻奏，商賈流通，王侯之貴，固吾所自有，萬世之基，已立於不拔，此自貴价所目睹者，不佞亦何慕於爵号，何貪於疆土，而為此削髮之舉哉。

쪽에 고료(高遼), 북쪽에 동영(東瀛, 일본)이, 정경의 편지에서는 ‘동쪽에 일본, 남쪽에 루손(呂宋)’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지도를 펴보면 타이완의 동북쪽에 일본이 있고 남쪽에 루손 섬(필리핀)이 있다. 정경의 편지에 나오는 기록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록』에 나오는 ‘고료(高遼)’란 무엇인가? 바로 뒤에 나오는 동영이란 단어와 연관 지어 생각하면, 국명이나 지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타이완 남쪽에는 루손 섬이 있다. 따라서 ‘고료’에 루손 섬이라는 뜻이 있으면 문제가 간단하다. 그러나 루손 섬을 ‘고료’라 부른 예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고료’는 어디인가? 혹시 ‘고려(高麗)’를 잘못 쓴 것인가? 한글 발음은 비슷하지만 한자가 너무 달라 그럴 가능성은 낮다. 그렇지만 당시 이 ‘고료’를 우리나라라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사절단의 부사였던 남이성이다. 그는 3월 20일에 있었던 귀국보고에서 남방이 평정되었다는 데 사실이나고 묻는 임금에게 거짓이 아닌 것 같다고 한 다음, “신들이 접때 바친 문서는 이미 예람(睿覽)하셨을 것입니다. 정금의 글 가운데서, ‘남으로는 고료(高遼)까지 가고 북으로는 동영까지 간다’는 따위 말이 있는데, 동영은 일본을 가리키는 듯하고 고료는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듯하나, 이것은 겉으로 큰소리하는 것일 뿐이고 실은 곤궁하여 스스로 떨치지 못한다 하니, 우리에게는 걱정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³⁵⁾”라고 했다. 정경이 침공해 올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고료’가 우리나라를 가리킨다고 했다. 물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또한 ‘고료’가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 예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역시 ‘고료’가 ‘고려’와 발음이 비슷해서인가?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우리나라가 타이완 남쪽에 위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의 지리상 위치와 너무 다르다. 현재로서는 ‘고료’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3월 2일의 장계에 나오는 ‘고료’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루손(呂宋)³⁶⁾이라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정경의 이 편지는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된다. 그런데 남이성이 이를 우리나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 편지는 우리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앞에서 인용한 3월 2일의 선대장계에 나오는 “전에 정금이 복건 총독에게 답한 글에, ‘본도(本島)는 바람을 받은 배가 남으로는 고료(高遼)까지 가고 북으로는 동영(東瀛)까지 가니, 어느 곳인들 둔소(屯所)를 개척할 수 없으며, 어느 곳인들 군사를 모을 수 없겠는가?’”라는 부분도 심상치 않은 내용이 된다. 즉 정경이 청나라 관리에게 자기들은 언제든

35) 『숙종실록』, 숙종 8년 3월 20일

36) 실제로 동녕왕국은 정성공, 정경, 정극상 3대에 걸쳐 필리핀 원정계획을 세우기도 했다.(林田芳雄, 앞의 책, 219쪽)

지 일본이나 조선에 갈 수 있고 그곳에서 군사를 모으고 주둔시킬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경 본인이 언제든지 조선에 쳐들어와 점령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경의 조선침공설은 더욱 현실성 있는 이야기가 된다. 실제로 이 발언은 이후 사람들에 의해 인용되면서 정경의 조선침공설을 더욱 신빙성 있는 것으로 만들어간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정경의 침공 여부가 당장 발등의 불이 된다. 왕으로서는 당연히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3월 20일에 있었던 귀국보고에서 임금이 정경에 관해 꼬치꼬치 따져 물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남이성은 정경이 언제든지 일본이나 조선에 갈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허풍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로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신완은 정경이 1667년 청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해 타이완으로 달아났지만, 그가 타이완으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의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즉 조선을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여기서 두 사람이 묘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즉 남이성은 호기를 부리는 정경의 글을 인용하면서도 실제로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고, 신완은 그가 타이완으로 쫓겨갔다고 하면서도 걱정거리라 했다. 같은 정보를 접한 사람들의 이야기치고는 너무나 결론이 다르다.

그런데 사절단이 정경의 문제로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던 1682년 3월, 정경은 이미 죽고 없었다. 삼번의 난을 이용하여 1674년 5월 대륙에 진출한 정경은 한때 복건성 동남쪽 연해지방의 대부분과 광둥성 연해부 및 동북부의 일부지역을 차지했다. 하지만 점차 청군의 반격에 밀려 1680년 2월에는 대륙의 거점부를 모두 잃고 팽호도 서쪽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된다. 그리고 1681년 1월 28일 세상을 떠난다. 이후 내부 항쟁을 거쳐 차남 정극상이 12살의 나이로 정경의 뒤를 잇는다. 따라서 사절단이 정경에 대해 보고하던 이 시기에 타이완은 정극상이 다스리고 있었다.

아무튼 정경의 편지에 나오는 ‘고료’를 잘못 해석한 탓에 묘당에서 이런 논의들이 오가던 1682년 5월 9일, 황해도 평산군에 있는 허사(許沙) 앞 초도(椒島)에 황당선 9척이 10여 일간 머물다 간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당시 허사 첨사 장후량이 참수형을 당했다. 조정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³⁷⁾. 다소 과한 처벌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는 당시 이 이양선이 정경의 군대였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1682년 10월 임술3고변으로 역모에 몰린 왕족 낙서령이 심문 도중 ‘정금의 이야기를 왜 헛소문이라 하는가? 정금의 군대가 이미 허사에서 모습을 나타내었다. 듣건대, 그 배에 풍신이 좋고 금관자를 단 자가 장후량의 생일잔치에 참석했다가 시종하는 두 사람이 해가 저물

37) 『숙종실록』, 숙종 8년 5월 9일

어 빨리 돌아가기를 재촉하자 바로 수상한 배로 돌아'갔다고 한³⁸⁾ 것을 보면, 당시 이 황당선³⁹⁾이 정경의 군대라는 이야기가 퍼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682년을 지나면서 수면 밑에 잠복해 있던 정경의 조선침공설이 다시 서서히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표면화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1683년 12월 22일 쓰시마도주가 보낸 편지였다.

2) 쓰시마 서계와 정경의 2차 침공설

정경이 사망한 것은 1681년 1월 28일이다. 그렇지만 그의 죽음이 조선에 바로 전해진 것은 아니다. 그의 사망설은 1683년 『실록』에 처음 등장한다. 청에 사온사로 갔던 김석주가 그해 3월 7일, 정경이 병이 나서 아우 정현이 대신 다스린다고 하는데 혹자는 정금이 이미 죽었고 그 맏아들은 죽임을 당해 둘째 아들이 자리를 이어받았다고도 한다고 보고해, 정경의 죽음이 조선에 처음 알려졌다. 정경이 죽은 지 2년이나 지난 후였다. 김석주는 4월 29일 열린 귀국 보고회에서 정경이 이미 죽고 동생이 대신 다스린다고 한 다음, 이는 일본에서 통보한 것이므로 믿을 만하다고 했다.

사실 1680년 이후 정경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 즉 대륙 연안부의 거점을 모두 잃고 타이완으로 철수한 1680년 3월 이후, 정치를 큰아들 정극장에 맡기고 있었다. 죽기 직전에는 측근들로부터 정극장에 대한 충성 서약까지 받아냈지만, 그가 죽자 측근들은 정극장이 친자가 아니라는 누명을 씌워 살해했다. 그리고 둘째인 정극상을 왕으로 추대했다⁴⁰⁾. 그렇다면 당시 김석주의 정보는 상당 부분 정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시 조선정부는 정경의 죽음을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쓰시마로부터 한 통의 서계가 도착한다. 1683년 12월 22일 쓰시마도주가 예조에 보낸 편지인데, 거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근래에 남경(南京)의 치란(治亂)은 어떠합니까? 저르기 듣건대, 병혁(兵革)이 그치지 아니하여, 요사이 동녕(東寧)의 정금사(鄭錦舍)가 크게 기병(奇兵)을 모

38) 『연려실기술』 제34권, 「숙종조 고사본말(肅宗朝故事本末)」, 「임술년 역변을 고한 세 가지의 옥사와 김환(金煥)·김중하(金重夏)·김익훈(金益勳)의 아방(兎房) 밀계(密啓) 노·소론의 분열」

39) 『국역비변사등록』 (36책, 숙종 8년 6월 1일, 「左議政 閔鼎重 등이 入侍하여 來泊한 荒唐船을 隱諱하려는 張後良의 罪에 대해 논의함」)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 행관중주부사 김수흥(金壽興)이 “다른 나라 선척이 근처에 와서 정박해도 전연 몰랐다면 어찌 변장을 설치한 본래의 뜻이겠습니까?”라고 한 말이 있다. 이를 보면 황당선이 외국 배였던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어느 나라 배였는지에 관한 기록은 없다.

40) 조너선 클레멘츠, 『해적왕 정성공』, 허강 옮김, 삼우반, 425쪽

집(募集)하고 만리(万里)에 배를 띄워 귀국(貴國) 지방(地方)을 침범하고, 울랑합(兀良哈)은 곧장 북경(北京)으로 들어가 장차 전공(戰攻)을 결행(決行)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듣건대, 청왕(清王)이 웅간 오강(雄奸傲強)하여 도리에 맞지 않는 어려운 일로써 귀국을 견책(譴責)하였다 합니다. 두 가지의 떠도는 이야기는 모두 한상(漢商)의 구관(口款)에서 나온 것입니다. 귀국은 다시 모역(耗斫)함이 없는지요? 인교(隣交)가 바뀌지 않았으니, 정성을 다함에 어찌 그침이 있으리오? 만약 급변(急變)이 있다면 모름지기 속히 신유(申諭)해야 할 것이오니, 모호하게 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⁴¹⁾

즉 정경이 조선을 침공하려 한다는 소문을 중국 상인에게 들었다는 것이다. 정경의 2차 조선침공설이다. 이에 대해 조선은 동지사 조사석의 보고, 즉 정극상이 윤6월 8일과 7월 15일에 청군에 항복문서를 보냈다는 보고를 근거로 중국 상인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회신을 보냈다.

실제로 정극상은 1683년 윤6월 8일 팽호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의 지휘관 시랑에게 항복을 청원했다. 그러나 시랑은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를 거절하여 정극상은 7월 15일 다시 2차 항복문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리고 8월 13일 시랑이 이끄는 청군이 마침내 타이완에 상륙⁴²⁾하여 동녕왕국은 최후를 맞이했다. 즉 당시 조사석의 보고는 매우 정확했던 것이다. 따라서 정경의 2차 조선침공설은 전혀 사실무근의 헛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정부는 이 보고를 신뢰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침공설이 관리들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면서 일대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 『실록』은 그 모습을 “이윽고 나라 사람들이 마치 구적(寇賊)이 문정(門庭)에 와 있는 듯이 크게 소요하여, 성안에 있던 자는 성 밖으로 나가고 성밖에 있던 자는 경기 땅으로 나가고, 경기의 백성은 또 옮겨서 다른 데로 갔으며, 조사(朝士)·대부(大夫) 중에도 깊은 산골짜기로 가족을 거두어 보낸 자가 많았다. 중외(中外)에서 짐을 메고 떠나는 것이 몇 달을 두고 그치지 않⁴³⁾”⁴³⁾었다고 묘사하고 있다. 혼란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양반을 살해하고 재물을 약탈하려는 목적을 가진 검계 등이 사방에서 조직되었다. 이들은 밤에 남산에 올라 태평소를 불어 군사를 모으는 것 같은 행동을 하거나 피란하는 사람의 재물을 탈취하는 등⁴⁴⁾ 세상을 더욱 어수선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이 서계의

41) 『숙종실록』, 숙종 9년 12월 22일

42) 林田芳雄, 앞의 책, 289쪽

43) 『숙종실록』, 숙종 10년 1월 11일

44) 『연려실기술』 제36권, 「숙종조 고사본말」, 「난민을 잡아 다스리다」

내용을 쫓 밖으로 유출하여 혼란을 야기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문제가 제기되어 승정원을 비롯해 사헌부와 사간원 등의 관리들이 줄줄이 사표를 제출하기에 이르고, 서계의 진위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다.

1684년 1월 19일 숙종이 대신들을 모아 놓고 이 편지의 진위에 대해 논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회의에서 김석주는 오삼계가 이미 멸망하여 정경은 청을 막기에도 바쁠텐데 어떻게 만 리 바다를 건너 조선을 침공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런 다음 앞에서 남이성이 언급한 ‘뚝 하나만 달면 고려(高麗)까지 갈 듯 한데, 어느 땅엔들 나라를 세울 수 없겠는가?’라는 정경의 글을 인용한 뒤, 이걸 보면 또한 정경이 조선을 침공하려 한다는 쓰시마 서계가 거짓이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침공설의 신빙성을 높이는 자료로 정경의 편지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자 예조판서 윤지완이 정경의 침공설은 거짓이라 한 다음 대마도주의 밑에 있는 자들이 모두 간사한 자들이라 다른 저의가 있어 이런 소문을 내는 것이라 했다⁴⁵⁾. 윤지완은 2년 전인 1682년 통신사의 정사로 일본을 다녀온 사람으로 숙종이 일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종종 자문을 구하는 사이였다. 그러나 그도 역시 정경이 사망하고 타이완이 항복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역관 박재홍에게 많은 은을 지참시켜 쓰시마에 파견한다. 쓰시마에서 탐문하고 돌아온 박재홍은 중국 상인의 말이 허황된 것⁴⁶⁾이라고 보고했다. 1684년 하지정사로 재차 청에 다녀온 조사석도 정극상의 귀순이 헛소문이 아니라며 타이완의 멸망을 확인하고 있다⁴⁷⁾. 그러나 당시 조선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정경의 사망 소식과 마찬가지로, 조사석의 이 보고를 신뢰하지 못했다. 조선에서 타이완의 멸망을 확신한 것은 1685년 3월 6일 사은사 남구만의 장계를 통해서였다. 남구만은 심양에서 보낸 장계에서 정경이 사망하고 그 아들 정극상이 이미 항복했다⁴⁸⁾고 썼다. 이로써 조선에서 정경의 침공설을 걱정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45) 앞에서 김석주는 일본의 정보라 믿을 만하다고 했지만, 윤지완의 이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조선은 일본, 특히 쓰시마의 정보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전해에는 동래부사가 정경과 관련된 밀계를 보내면서 “그러나 왜인(倭人)이 전하는 문자(文字)는 말에 이해하지 못할 것이 많고, 말한 바가 허망(虛妄)한 데 관계되니, 믿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숙종9(1683)년 7월 28일)라 했다.

46) 『숙종실록』, 숙종 10년 3월 11일. 이에 대해 사관은 “대개 도이(島夷)는 속이는 일도 많고 작은 꾀로 우리를 속이기를 좋아하는데, 조정에서는 그 간사한 정상을 알아서 깨지 못하고 또 따라서 뇌물을 주고 비밀히 염탐하여 스스로를 깔보이니, 식자가 한탄하였다.”고 하며, 조정의 행태와 일본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47) 『숙종실록』, 숙종 10년 3월 14일

48) 『숙종실록』, 숙종 11년 3월 6일

그런데 이 쓰시마 서계는 1689년에 다시 문제가 된다. 기사환국으로 정권을 탈환한 남인이 서인을 공격하기 위해 정경의 2차 침공설과 관련된 쓰시마 서계를 조사한 것이다. 그들은 쓰시마 서계가 도착하기 전인 1683년 봄에 이미 그와 똑같은 내용의 익명서(왜서)가 있었다며, 이 두 문건(익명서와 서계)이 일본의 손을 빌려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서인 이사명 등이 위조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서인들이 자기를 집권 시기에 일부러 사회 혼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점, 박재홍의 보고에서도 쓰시마가 서계를 보낸 것은 인정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별로 설득력이 없다. 이는 이미 윤지완이 언급한 것처럼, 조선 국내의 불안정한 정세를 이용하려는 쓰시마의 농간에서 비롯된 것⁴⁹⁾으로 보인다.

4. 결론

이상에서 2번에 걸친 정경의 조선침공설에 관해 살펴보았다. 먼저 1차 침공설은 1674-5년 경, 조선이 정경과 제휴하여 함께 청을 공격하지 않으면 정경이 먼저 조선을 공격할 것이라는 내용의 쓰시마 서계가 유포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논리의 근거는 소위 대명의리론이다. 즉 명에게 재조지은의 은혜를 입고 있는 조선이 정경을 도와 반청복명운동에 참가해야 하는데 오히려 청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 먼저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쓰시마 서계는 정말로 쓰시마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누군가 가짜로 위조한 것이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실각한 서인 그룹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면 당시 정경과의 제휴를 주장하던 청남 그룹과 관계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가짜 왜서의 논리가 당시 정경과 제휴하여 청을 정벌해야 한다는 청남들과 같은 논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처음에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조창한의 경우를 보면 나중에 윤희와 관련된 혐의로 탄핵을 받는다. 이는 이 두 그룹의 연계를 시사해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1683-4년 무렵 유행한 2차 침공설도 역시 정경이 조선을 침공하려 한다는 내용의 쓰시마 서계에서 비롯되었다. 1차 침공설의 단초를 제공했던 쓰시마 서계가 가짜였던 것에 비해 이 서계는 물론 진짜였다. 그렇지만 정경의 뒤를 이은 정극상이 이미 1683년 8월 청에 항복했기 때문에 이 2차 침공설은 전혀 사

49) 우라 렌이치(浦廉一)도 「台湾鄭氏と朝鮮との關係」(『広島大学文学部紀要』3, 1953년, 90쪽)에서 이 서계가 쓰시마의 작위(作為)에 의한 것이라 했다.

실무근의 헛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문으로 인해 조선은 극심한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처럼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근거없는 침공설로 조선이 몸살을 앓아야 했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먼저 수집한 정보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당시 조선정부는 1년에도 몇 차례나 파견하는 청나라 사절단을 통해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비교적 정확한 정보들이었다. 그러나 이를 크로스 체크할 정보가 없었기에 수집한 정보를 그대로 신뢰할 수가 없었다. 크로스 체크에 사용해야 할 쓰시마 정보가 오히려 혼란을 더 부채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차 침공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쓰시마 서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당시 그런 소문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정경과 제휴하여 청을 공격해야 하는 대명리를 실행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미안한 감정, 정씨가 조선을 새로 지배할 것이라는 정진인설의 유포, 잘못 전해진 정경의 편지 등이 모두 이러한 침공설을 더욱 현실감 있는 것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이후 정경의 침공설이 해상진인과 결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국역비변사등록』 32권, 36권

『연려실기술』 34권, 36권

『추안급국안』 9

강창룡(2004), 「17世紀 中葉 中国人의 濟州 漂到 - 顯宗 8年(1667) 明나라 林寅觀 一行의 濟州 漂着과 處理를 中心으로」, 『耽羅文化』 25,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김문식(2012), 「成海庇이 증보한 『丁未伝信録』」, 『진단학보』 11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김탁(2005), 『정감록』, 살림, 68쪽
- 이덕일(1997), 『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 석필
- 이성무(2000), 『조선시대당쟁사2』, 동방미디어
- 우인수(2010), 「17세기 후반 대만 정씨해상세력에 대한 조선의 정보 수집과 그 의미」, 『대구사학』 제100권, 대구사학회
- 정응수(2012), 「정성공 일가에 대한 조선정부의 인식 변화」, 『일어일문학』 55집, 대한일어일문학회
- _____ (2013), 「조선 후기의 해상진인과 정경 부자」, 『일본문화학보』 58집, 한국일본문화학회
- 최관(2008), 「정성공과 동아시아」, 『일본학보』 74-2, 한국일본학회
- 浦廉一(1953), 「台湾鄭氏(特に鄭經)と朝鮮との関係」, 『広島大学文学部紀要』 3
- 神田信夫(1951), 「三藩の亂と朝鮮」, 『駿台史学』 1호
- 林田芳雄(2004), 『鄭氏台湾史—鄭成功三代の興亡実紀』, 汲古書院
- 林春勝, 林信篤(1981). 『華夷変態』 上, 東方書店
- 松本真輔(2013), 「韓國の予言書『鄭鑑録』と東アジアを駆けめぐった鄭經の朝鮮半島侵攻説」, 『アジア遊学』 161, 勉誠出版
- 孔立(1983), 「朝鮮與鄭成功父子」, 『清史研究通讯』, 1983-4, 中国人民大学清史研究所主办中国社会科学院历史研究所清史研究室, 中国社会科学出版社
- 廈門大学台湾研究所·中国第一歴史档案館編輯部編(1983), 『康熙統一台湾档案史料選輯』, 福建人民出版社
- 진순신(1995), 『중국의 역사』 11, 권순만 외 옮김, 한길사
- 조너선 클레멘츠(2008), 『해적왕 정성공』, 허강 옮김, 삼우반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
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lId=PPL_6J0c_A9999_1_0033456&isEQ=true&kristalSearchArea=B

要 旨

これは鄭經の朝鮮侵攻説について調べたものである。鄭經の朝鮮侵攻説は二回あった。一次侵攻説は1674-5年頃広まった。朝鮮が鄭經の東寧王国と提携して清を攻撃しないから、鄭經が先に朝鮮に攻めてくるという内容である。いわゆる対明義理論に基づいたものである。もちろん、これは朝鮮政府に不満を持っていた人々が偽造したものである。

二次侵攻説は1683-4年頃流行した。しかし、すでに1683年8月、鄭經の後をついだ鄭克塽が清に降伏したので、この時に東寧王国はもはや存在していない。したがって、この二次侵攻説は全く事実無根のデマ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この噂のため朝鮮は激しい混乱に陥ったのである。

朝鮮が、このようにつまらない噂に悩まさ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理由は幾つかある。それはまず、自分が収集した情報を信頼しないところにある。当時、朝鮮政府は年に何回も派遣する清への使節を通じて最新の情報を集めていた。その情報はかなり正確なものであった。しかしながら、これをクロス・チェックするほかの情報がなかったため、清からの情報をそのまま信頼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クロス・チェックする際使われるはずの対馬からの情報が、逆に混乱を煽り立てるからである。二次侵攻説の直接の原因になった対馬からの書契が、その代表的な例である。

また、当時の朝鮮社会に、このようなデマが浸透しやすい雰囲気があったのも事実である。たとえば、対明義理を実行できないところからくる後ろめたい感情、鄭氏が朝鮮を支配するという鄭真人説の流布、朝鮮で誤解していた鄭經の手紙などが、鄭經の朝鮮侵攻説をより現実的なものに作り上げていたのである。そして、このような状況が以後、鄭經の朝鮮侵攻説と海上真人説とが結び付く土台になった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鄭經、朝鮮侵攻説、対馬の書契、対明義理論、道説の予言書、
『華夷変態』、高遼、海上真人

투 고 일 : 2015. 5. 31
심 사 일 : 2015. 6. 13
게재확정일 : 2015. 7. 4